

유한킴벌리 Giving Index :

2009년도 한국인의 개인기부지수 결과 발표

Analysis of Giving in Korea 2009

Presentation of "Yuhan-Kimberly Giving Index"

Survey Results



강철희 | Chul Hee K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강철희 교수님은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기부문화에 대한 전문가로, 2010년 미국비영리학회 이사로서 아시아인 최초로 선출되었다. 기부문화관련 다양한 연구와 해외학술대회 다수 참석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2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2부터 현재까지 개인기부지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비영리기관 온라인 기부 증액자의 기부 증액행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한국인의 나눔: Giving Index 2010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I. Introduction

연구배경

• 연구배경

한국인의 나눔행동의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연구목적

2009년도에 행해진
한국인의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및 자원봉사 행동을
탐색해 보고자 함: Who gives what, how much,
why, how, and where?

연구내용

한국인의
기부 및 자원봉사행동:
무엇에 대해 얼마나
참여하는가?

한국인의 나눔의 동기
분석:
왜 참여하는가?

한국인 나눔의 방법과
대상에 대한 분석:
어떻게 어디에 참여
하는가?

조사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	1,035명
표본추출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 [조사지점 선정]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 [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0\%$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0. 7. 19 ~ 8. 23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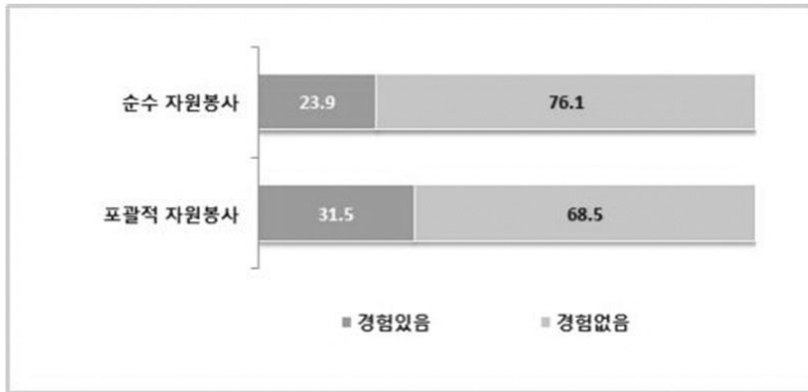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자원봉사 실태	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 활동처 자원봉사 시간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빈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경도 자원봉사 활동 방법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유산 기부 의향 유산 기부 의향 배움 유산 기부 의향 형태 유산 기부 장애 요인
기부 실태	기부 참여 여부 기부처 기부금액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정기적 기부 참여 빈도 기부처 인지경도 기부 방법 기부의 내적동기 기부의 외적요인 기부 확대 계획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나눔 교육 경험
기부 의향 및 계획	향후 1년 내 기부할 의향 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기부 금액 사용 의향 분야 기부 금액 사용 의향 대상 기부 금액 사용 의향 단위	기부와 인터넷 활용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기부 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것
		시설/기관/ 단체에 대한 신뢰도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II-1. 자원봉사 참여여부

• Summary

- 23.9%가 일반자원봉사에 참여
- 종교자원봉사까지 포괄하는 경우에는31.5%가 참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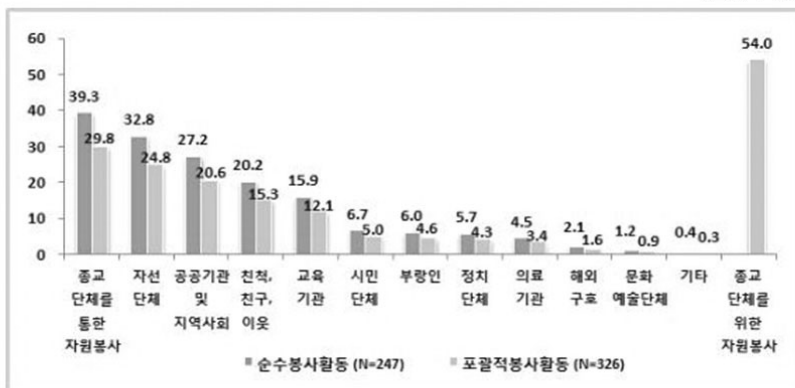


II-2. 자원봉사 활동처

• Summary

- 참여자 중 종교단체를 통한 자원봉사가 매우 높은 비중
- 자선단체를 위한 자원봉사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
- Informal 자원봉사의 비중도 주목할만한 규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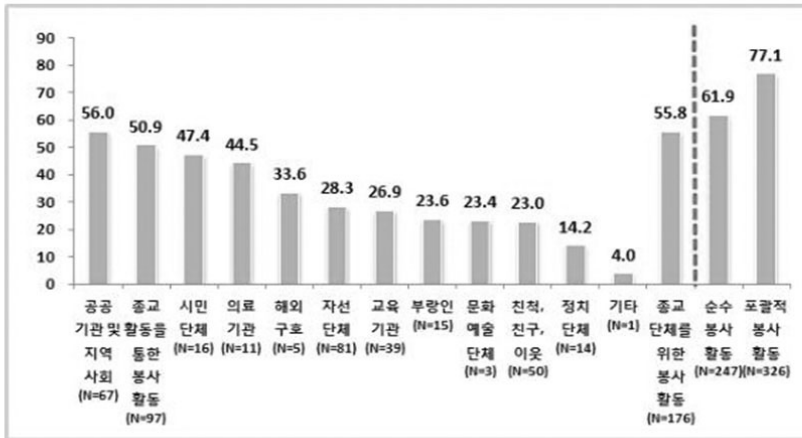


II-3. 자원봉사 시간

• Summary

- 참여자 중 평균시간은 일반자원봉사의 경우 연간**61.9**시간
- 참여자 중 일부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있기에 전체 평균이 높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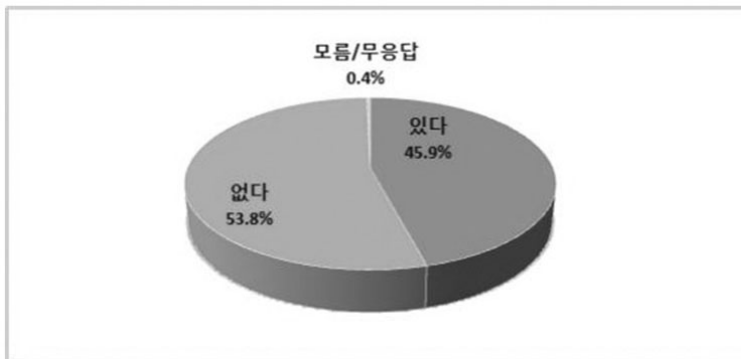


II-4.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여부

• Summary

- 정기성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있음
- 참여자 중의 정기성 비중이**45.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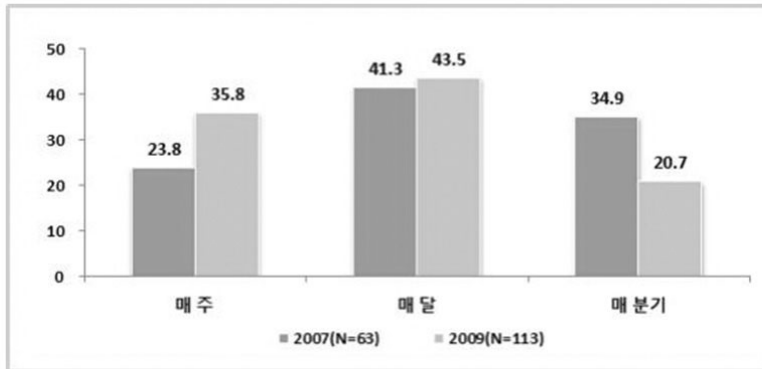


II-5.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 빈도

• Summary

-2007년과 비교할 때 자원봉사 정기성에서 매 분기의 비중은 떨어지고 있고 매 주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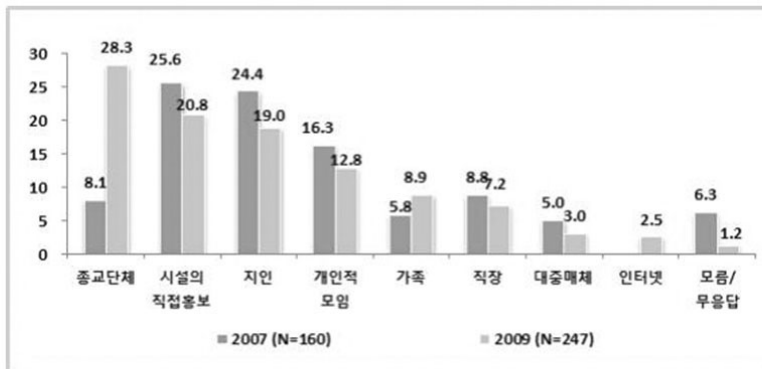


II-6.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 Summary

-자원봉사의 활동처 인식에서 세 경로가 주목됨: 종교단체, 직접홍보, 지인
-특히 사회적 책임에 눈을 뜨고 있는 종교단체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주목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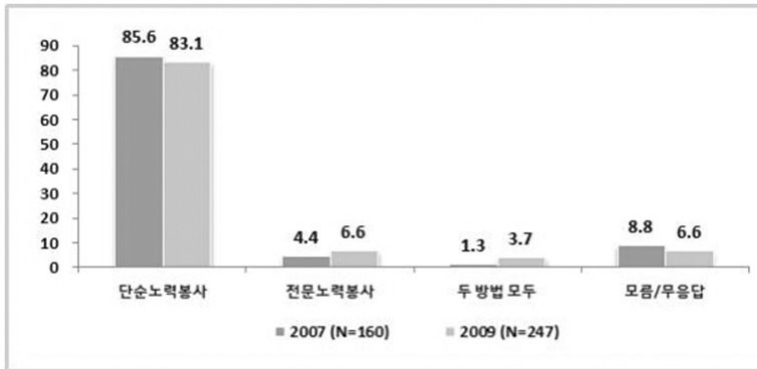


II-7. 자원봉사 활동 방법

• Summary

- 어떤 형태의 자원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여전히 방법이 더 다각적이어야 함을 제시
- 단순노력봉사가 여전히 **83%** 이상의 수준임

(단위 : %)



III-1. 기부 참여 여부 (다음 발표와 중복가능성 존재함)

• Summary

- 55.7%**가 자선적기부(*secular giving*)에 참여
- 종교적 기부 및 *mutual aid* 형 기부 측 경조사까지 포괄하는 경우에는 **92.2%**가 참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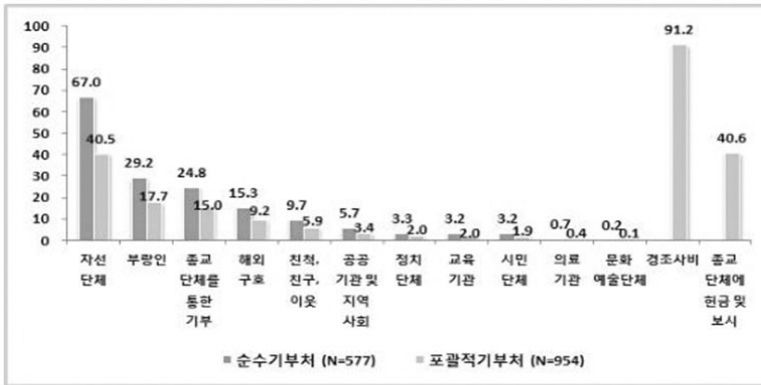


III-2. 기부처

• Summary

- 참여자 중 자선단체에의 기부가 가장 높은 **67%**을 차지
- 정치, 교육, 시민단체, 의료기관, 문화예술의 비중은 **5% 이하**
- 경조사를 통해 상호부조에 참여하는 경우는 **91.2%**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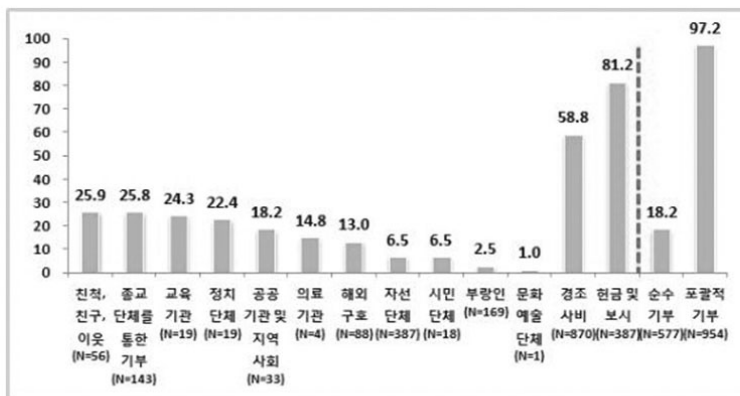


III-3. 기부금액

• Summary

- 분석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는 제한성이 있긴 하나, 한국리서치 방식을 따라 연간 평균을 계산해보면, 참여하는 시민의 자선적 순수기부평균은 **18.2만원**, 경조사비는 **58.8만원**, 종교적 기부는 **81.2만원**의 규모
- 다음에 발표될 내용에서 보다 정확하게 수정된 수치가 보고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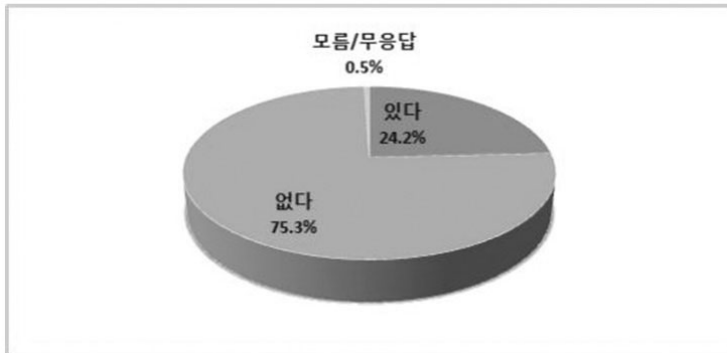


III-4.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다음 발표와 중복가능성 존재함)

• Summary

-참여자의 정기성 비중은 **24.2%**로 자원봉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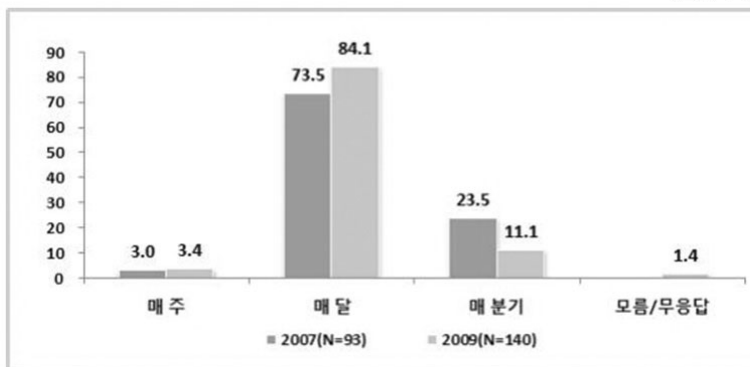


III-5. 정기적 기부 참여 빈도

• Summary

-정기적 참여자중 매 분기의 비중은 떨어지고 매 달의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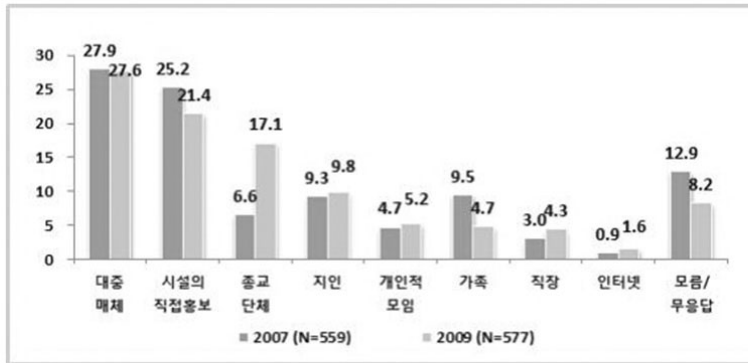


III-6. 기부처 인지 경로

• Summary

- 기부의 대상에 대한 인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대중매체의 기여가 돋보이고 있음
- 아울러서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종교단체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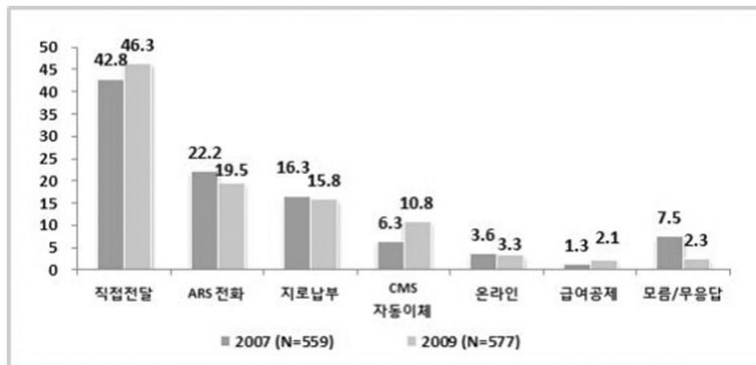


III-7. 기부 방법

• Summary

- 기부방법에 있어 직접전달이 여전히 주도적인 가운데, CMS 자동이체 및 급여공제가 증가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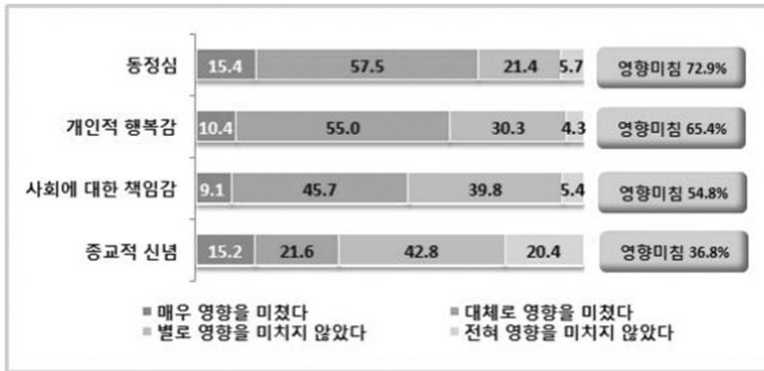


III-8. 기부의 내적 동기

• Summary

- 내적 기부동기의 순서는 동정심(empathy), 개인적 행복감(joy of giving),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 종교적 신념(religious faith)의 순임
- 여전히 가장 높은 동기는 '불쌍하다' '힘들겠다' '안되었다' 등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나눔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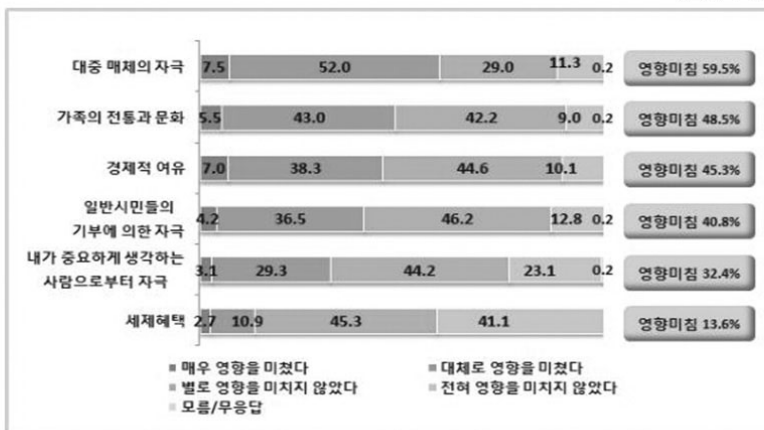


III-9. 기부의 외적 요인

• Summary

- 외적 기부동기의 순서는 대중매체의 자극, 가족의 전통, 경제적 여유, 타인의 나눔행동에 의한 자극,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극의 순임
- 세제혜택의 동기는 매우 미약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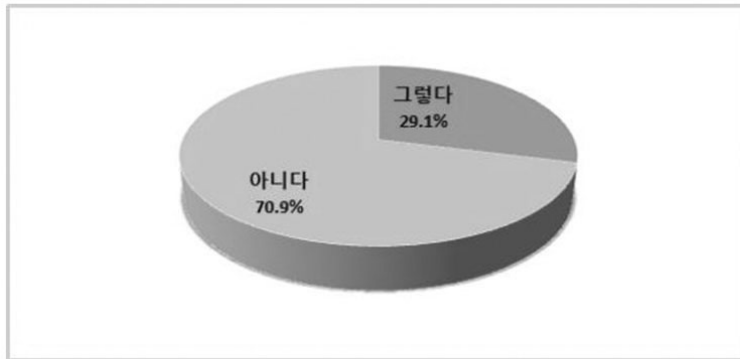


III-10. 기부액 확대 계획

• Summary

-기부규모의 확대와 관련해서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대상은 기부에 참여하는 시민의 약 **29%**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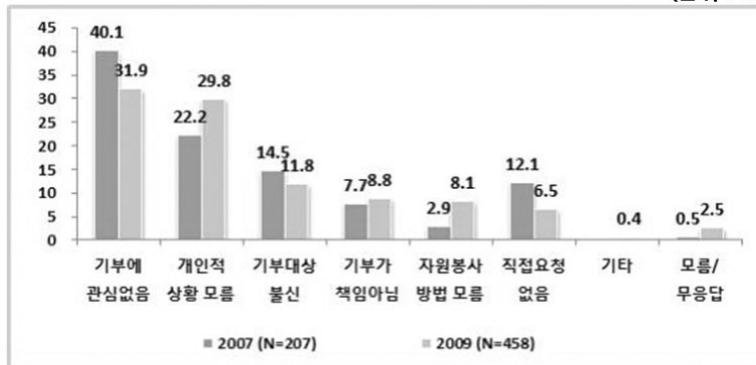
III-11.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 Summary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는 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와 개인적 상황이 주를 이룸

-특히 관심이 없어서인 경우의 비중이 주는 양상이고 개인적 상황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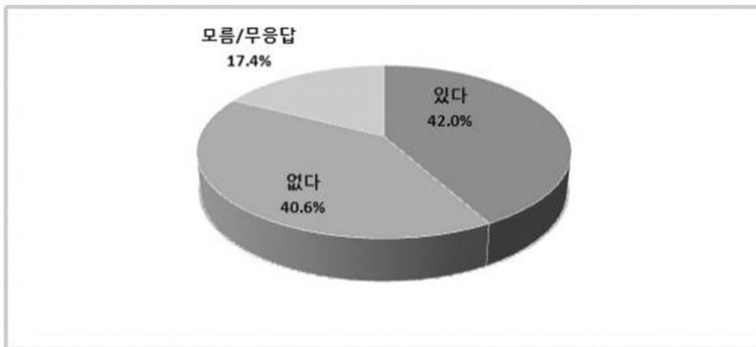


VI-1.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 Summary

- 향후 1년 이내에 기부할 의향과 관련해서 42%가 긍정적이고 17.4%가 uncertain하다고 응답
- 바로 17.4%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시민으로써 이들의 선택에 따라 2010 년도의 기부참여규모가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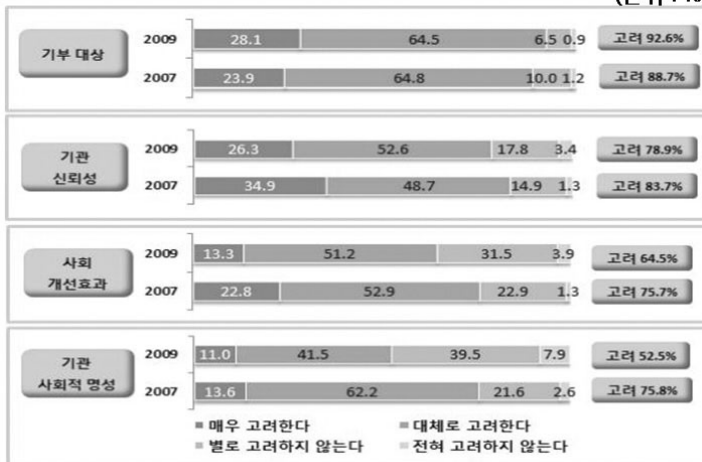


VI-2. 기부 결정시 고려사항

• Summary

- 기부의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것 중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것은 누가 최종 기부대상인지 그리고 매개하는 기관이 신뢰성을 지닐 수 있는지 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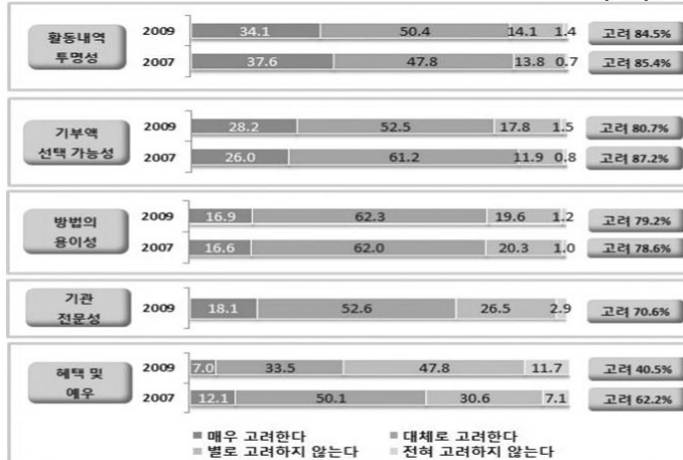


VI-3. 단체/시설/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

• Summary

- 기부의 과정에서 기부자가 고려하는 바는 투명성, 기부규모의 선택 용이성, 기부방법의 편리성, 매개하는 기관의 전문성의 순서임
- 기부자 자신에 대한 혜택과 예우는 부차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일 수 있기에 그런 양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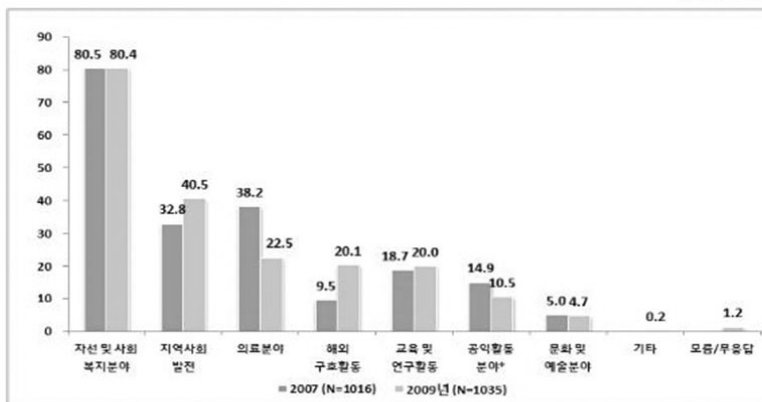


VI-4. 기부금품 사용 희망 분야

• Summary

- 기부의 사용희망 분야에는 자선 및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주도적임
- 2007년과 비교해서 크게 변화한 분야는 지역사회발전과 해외구호활동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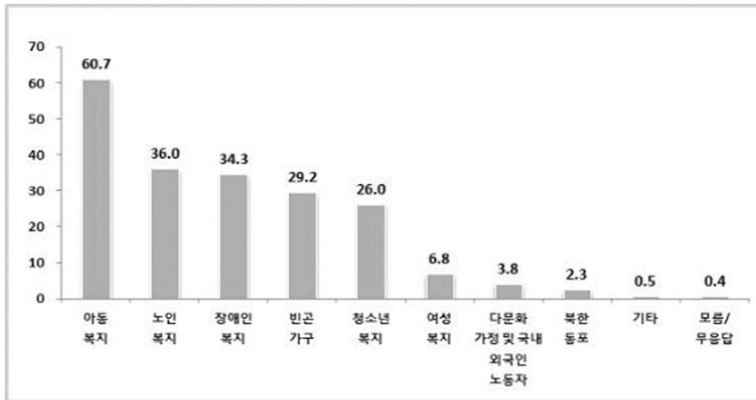


VI-5. 기부금품 사용 희망 대상

• Summary

- 기부의 대상으로 가장 선호되는 인구는 아동이고, 그 다음이 노인과 장애인 및 빈곤가구임
-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북한동포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선호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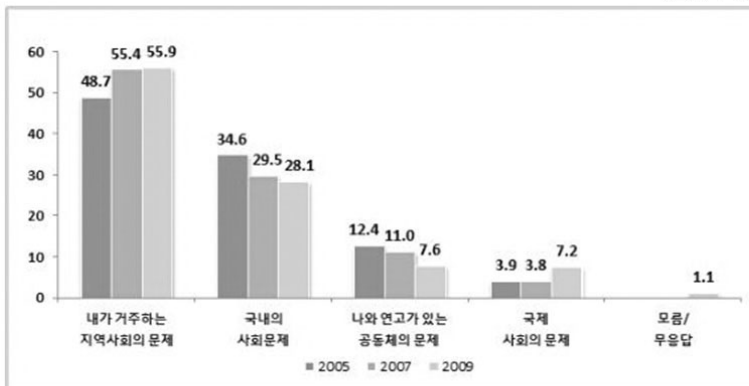


VI-6. 기부금품 사용 희망 단위

• Summary

- 대상이 누구든 어디에서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지와 관련해서 가장 선호되는 단위는 바로 나의 거주지역사회임
- 그러나 국제사회문제의 경우 비약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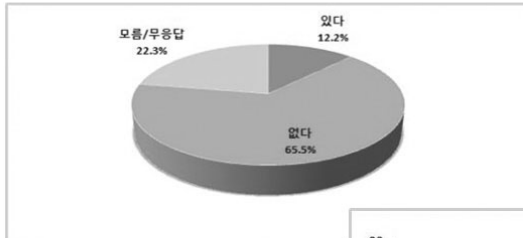
(단위 : %)



V-1. 유산기부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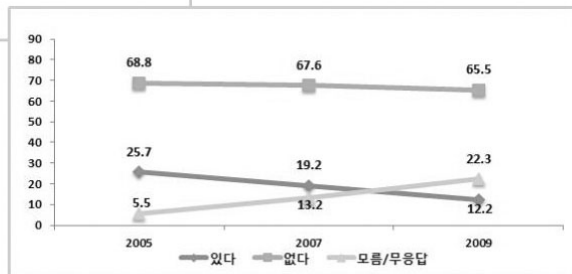
• Summary

- 유산기부의 의향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2009년**의 경우 **12.2%**임
- 그러나 동시에 의향이 없는 시민의 비중도 줄어들고 있음
- 즉 경제상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산기부에 대해서도 **uncertainty**를 갖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유산기부 의향 (단위 : %)

유산기부 의향 변화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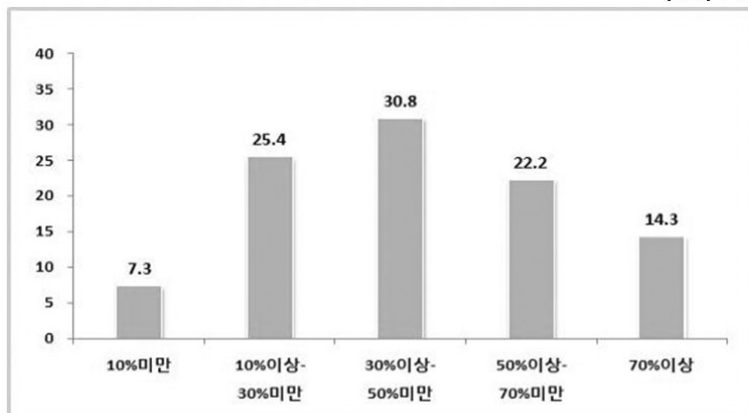


V-2. 유산기부 희망 비율

• Summary

- 유산기부의 비중을 전 재산 중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보면, 고려하는 이들 중에서의 분포는 **30% 이상 50% 미만**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전의 조사결과에 비교해서 고려하는 시민의 비중은 줄고 있으나, 고려하는 시민 중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임. 기부의 규모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은 한국인의 기부에서 참여의 폭과는 달리 참여의 질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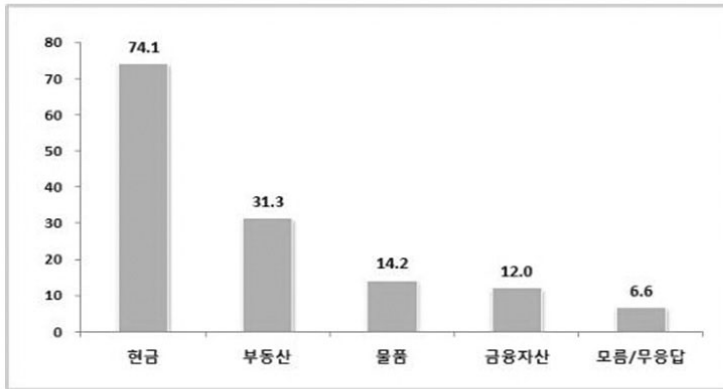


V-3. 유산기부 희망 형태

• Summary

- 유산기부의 희망 형태와 관련하여 대다수는 현금과 부동산임
- 그러나 기타의 물품(소장품) 및 금융자산에 대한 고려도 증가되는 양상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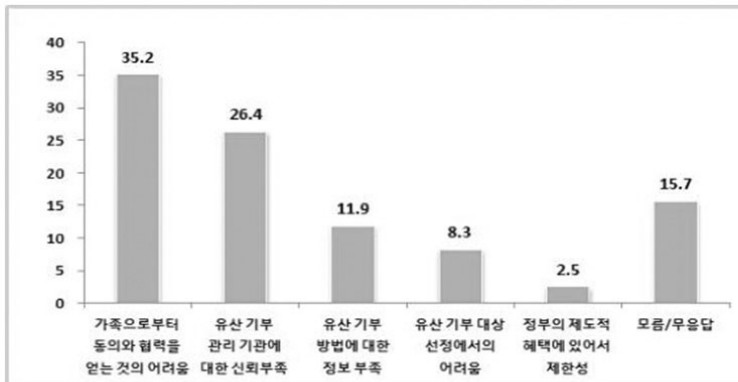


V-4. 유산기부 장애 요인

• Summary

- 유산기부 고려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가족임
- 그 다음이 과연 나의 유산을 신뢰 있게 관리해줄 것인가와 방법에 대한 무지 및 대상선정에서의 어려움임. 두 번째 장애의 사항들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수 있음
- 제도적 혜택의 내용과 규모는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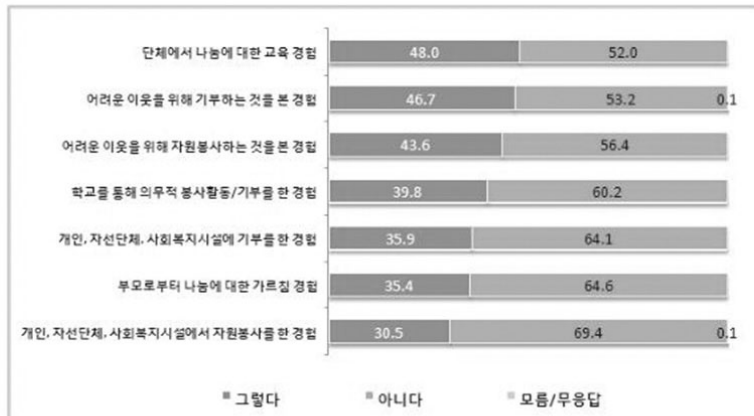


VI-1.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 나눔교육 경험

• Summary

-한국사회에서 나눔의 가르침은 다양한곳에서 전개되고 있어 나눔교육의 경험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나눔교육은 광범위하게 필요한 상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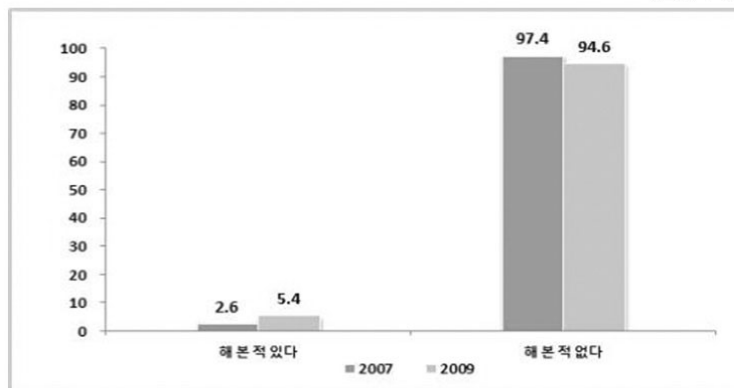


VI-2. 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 Summary

-인터넷을 통한 기부는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나 2007년에 비교해서 두 배 이상으로 발전하는 양상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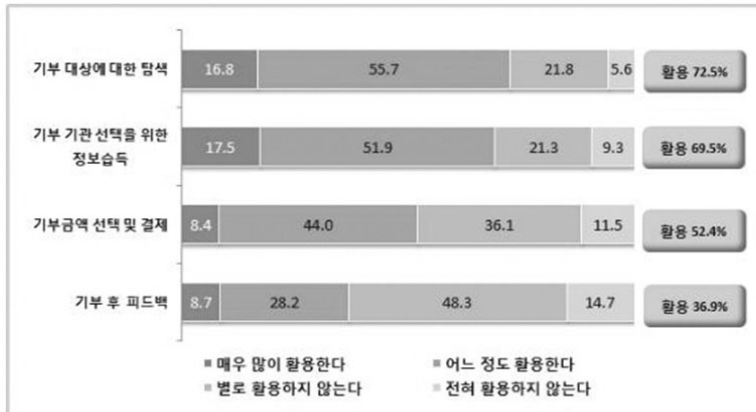


VI-3. 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 Summary

-기부의 과정에서 인터넷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특히 대상의 탐색과 매개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의 활용은 보편적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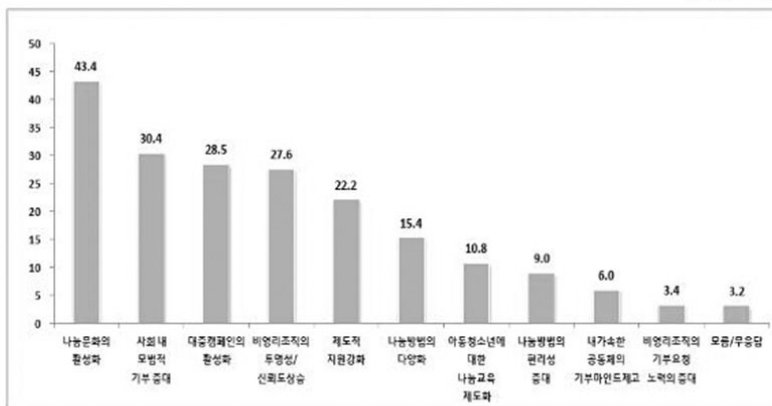


VI-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Summary

-한국사회에서 나눔이 더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나눔이 생활과 문화로 내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이 노블리스에 의한 **exemplary giving**이 필요하고, 그 다음이 방송과 언론 등에 의한 캠페인이고, 마지막으로 매개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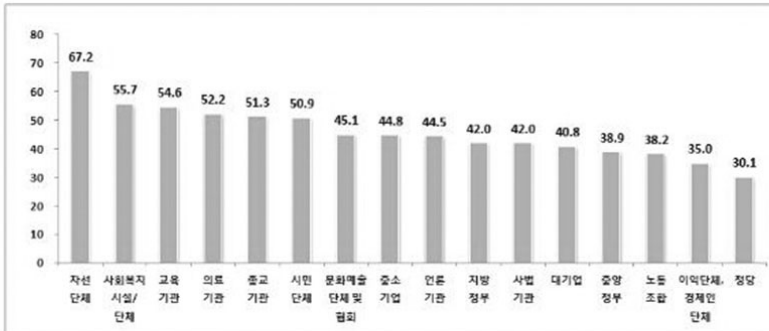


VI-5. 한국사회의 구성기관에 대한 신뢰도

• Summary

-나눔은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 신뢰도 수준이 매우 의미 있는데 그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은 자선단체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신뢰도 대상 기관은 정부, 노조, 이익단체, 정당으로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위 : %)



V. 결론 및 논의: 2010년 한국인의 나눔행동의 양상

• 나눔의 폭과 질

-한국인의 나눔의 참여 폭은 다소 줄었지만 자원봉사시간의 확대 및 기부 규모 확대 그리고 정기적 행동을 고려할 때, 나눔의 질은 제고되고 있음

• 나눔과 경제적 영향

-경제적 상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나눔 참여의 폭은 줄었으나,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나눔 충성자의 확대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나눔의 비중은 점차 커져가고 있는 양상

• 기부와 자원봉사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는 보완적일 수도 있으나 선택적인 차원에서도 기능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기부의 용이성으로 인해서 순수자선기부가 일반자원봉사보다는 보다 보편적임; 즉 기부의 선택이 보다 보편적인 상황

• 다양한 형태의 기부

-순수자선기부,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적 기부(경조사) 중 참여의 폭에서는 경조사가 가장 보편적이고, 그 다음이 순수자선기부와 종교적 기부임
-규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종교적 기부, 경조사, 순수자선기부의 순서임
-이 모두를 반영했을 때 혹은 종교적 기부와 순수자선기부만을 고려했을 때 한국인의 상대적 기부수준은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종교와 나눔

-한국인의 나눔행동에서 종교기관이 통로로 작용하는 양상이 보다 증대되고 있음이 관찰됨

V. 결론 및 논의

- 동정심에 기반한 공공부조형 나눔의 문제

- 한국사회에서 사각지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공공보호체계가 좀 더 발전되어야 하는 상황이기때,
이를 반영해서 동기로서는 동정심이 보다 강하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고 나눔의 대상 선택과 관련해서도
역시 공공부조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나눔 대상이 선택되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 나눔 다양성에서의 제한성: 그러나 확장되기 시작하는 나눔관심영역

- 나의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이 여전히 주도적인 상황에서 제 3세계 등을 향한 나눔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나눔의 다양성을 키워내야 하는 과제는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나눔의 꽃인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

- 비록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유산기부에 대한 생각이 증가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하는 시민 중
그 규모에 대한 생각은 더 크게 변화하는 등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됨
- 가장 큰 어려움인 가족의 반대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숙을 이끌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

- 한국사회 나눔의 발전을 이끈 주요 행위자

- 나눔 촉진자로서 정부와 방송 및 언론의 기여가 컸고, 나눔 매개자로서 아름다운 재단과 공동모금회 등의
자선단체 등의 기여가 컸으며, 주도적 반응자로서 시민의 성숙과 역량확대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

- 나눔문화의 구축을 위한 과제

- 나눔이 주요한 가치와 규범으로 자리잡아야 하고 나눔 교육이 공교육체계 내에서 제도화되어야 함
- 사회 지도층에 의한 모범적 나눔이 확산되어야 함
- 나눔 행동을 유인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나눔 **infra-system**이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함